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복구, 돌봄센터 잇따라 개관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준공식…본격 시설 운영
신용·우산·운암동 이어 4번째…고향사랑기금 활용해 공간 조성

광주시 복구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잇따라 열린다.

복구는 18일 오후 4시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는 신용·우산·운암동에 이어 복구에서 4번째로 조성된 생활문화 거점 시설이다.

복구는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를 활용해 주민 문화생활과 아이 돌봄이 어우러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이 곳은 과거 일곡동 우체국이 위치했던 곳으로 우체국이 지난 2020년 6월 업무를 종료한 이후 유휴 공간을 주민 편의 시설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구는 2022년 9월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후 복구는 총 3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우체국 부지를 지상 2층, 연면적 757.57㎡ 규모의 주민 문화·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시설 1층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이 마련됐다. 2층은 악기 연주와 노래 연습이 가능한 ‘방음공간’, 춤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마루공간’,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위한 ‘학습공간’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앞서 복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치동에 ‘아픈아이 돌봄센터’도 조성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아동과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진료·약 처방·귀가까지 책임지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로 지난 15일 준공식이 진행됐다.

복구는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고,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는 오치북합커뮤니티센터 내 88㎡의 공간을 활용해 침대돌봄실, 놀이학습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됐다. 침대, 책상, 교구 등을 갖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광주시 복구는 지난 15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진행했다. <광주시 복구 제공>

공간 조성에는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됐다. 복구는 지난해 11월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 사업’을 제1호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선정해 모금에 나섰고, 한 달 만에 목표액인 6000만 원이 모금됐다.

복구는 내년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 이후 가정

나 학교로 복구가 어려운 아동에게 센터 내에서 돌봄 전문 인력이 간병과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아픈아이 침대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문인 복구청장은 “과거 일방의 소식을 전하던 ‘2D 소통’ 공간이었던 우체국이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온기를 나누는 ‘4D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

생해 매우 뜻깊다”며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이 부모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복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시 동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신중년 인생 3모작 사업’을 통해 그림책 작가 6명을 배출했다. 사진은 참여자들이 출간한 전자 그림책. <광주시 동구 제공>

신중년들, 한장 한장 그림책을 펼치다

동구, 평생학습 ‘ChatGPT로 나도 그림책 작가’ 6명 배출

광주시 동구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은퇴를 앞둔 신중년(50~65세)들이 그림책 작가로 등단했다.

동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신중년 인생 3모작 사업’을 통해 그림책 작가 6명을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구 평생학습관은 신중년 세대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력·역량 개발 사업을 운영하며 총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 중 ‘ChatGPT로 나도 그림책 작가’ 과정에는 15명의 학습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이야기 구성부터 편집·출간까지 그림책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교육 받았다.

그 결과 6명이 그림책 작가로 등단했으며 각자 최소 1권에서 최대 4권까지 총 14권의 그림

책을 완성했다.

출간된 작품은 ‘숲의 비밀 편지’(변용철), ‘은이의 비밀정원 문’(김남영), ‘상현이의 머리 삼푸하는 날’(이혜경), ‘초롱빛 마음 친구’(나호남), ‘새우니의 바다평화 작전’(박양희), ‘그래 너는 너여도 캔칠아’(안미정)’ 등이다.

이들 작품은 전자책으로 제작돼 온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종이책과 전시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신중년 세대가 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로 제작하고, 작가로 데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직장인과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남구, 안전한 겨울나기…난방용품 나눔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주민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광주시 남구가 난방용품 제공, 한랭질환 대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구는 17일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관내에서 돌봄 이웃과 독거노인,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겨울 추위 대비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혹한기 한파 대비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취약계층 241세대와 사회복지시설 8곳에는 난방 물품 및 난방비가 지원된다.

담요와 텀블러, 핫팩, 기모 양말로 구성된 난방용품 꾸러미가 제공되며, 아동 공동생활가정 5곳에도 겨울 신발 구입 상품권 25매가 지원된다.

또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는 15만원 상당의 이불 세트, 행복멘토링 가정 66세대에는 상생카드와 담요, 예코백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850세대를 대상으로 손난로 보조배터리도 제공되며 남구민 나눔의 날 행사에서 모금한 후원 물품도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민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500여개의 보온 장갑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남구는 내년 2월까지 경로당 262곳과 홀로 사는 어르신 세대 등 400곳을 순회하면서 강추위에 따른 질환 예방과 저체온증, 빙판길 낙상 방지, 호흡기 질환 등 각종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동구,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 가입

시민들 건강한 식생활 실천

광주시 동구가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MUFPP)’에 가입했다.

동구는 지난 5일 ‘MUFPP’에 공식 가입해 국내 9번째 참여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MUFPP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실천을 약속하는 국제 협약으로, 인권에 기반한 먹거리

정책과 시민 참여, 도시·농촌을 잇는 유통 체계 강화, 공공 조달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공급 및 손실·낭비 감소 등을 실천 목표로 삼고 있다.

동구는 MUFPP 협약 내용과 참여 도시들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먹거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로 협약에 가입했다”며 “국제사회와 발맞춰 건강도시 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서구, ‘AI 당직봇’ 도입

야간·휴일 당직 민원 자동 접수

광주시 서구가 ‘AI 당직봇’을 도입해 야간·휴일 당직 민원 체계를 개편했다.

서구는 호남권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활용한 ‘AI 당직봇’을 도입해 당직 민원 자동 접수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응대체계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다.

‘AI 당직봇’은 구청 근무 시간 외에 접수되는 민원 전화를 1차로 보이스봇이 받아 민원에 응대하고 필요 시 당직 근무자에게 연결한다.

ARS(자동응답시스템)와 달리, 대화하듯이 구두로 질문과 응답을 하면 AI 당직봇이 내용을 알아서 정리하고 민원을 자동 접수해주는 식이다.

불법 주정차, 로드킬 동물 사체, 쓰레기 처리, 소음·악취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생활불편 민원은 보이스봇이 직접 접수하거나 즉시 안내하고, 재난 상황이나 긴급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에게 연결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 당직자 직접 응대를 요청할 수 있다.

서구는 그동안 당직 근무 시간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단순 전화 민원을 인공지능이 분담함으로써 당직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재난 대응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